



지식재산처, 우즈베키스탄에 K-지식재산행정시스템 전수 첫삽

- 역대 최대 규모로 우즈베크에 수출한 K-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착수식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 26.(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착수식을 개최하고, 한국형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기간·예산: '26년 ~ '29년, 973만불(약 134억,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예산)

이번 사업은 한국형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환경에 맞게 구축하는 것으로, 출원·심사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검색·분류 기능과 전자 행정 처리 체계가 적용된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이 해외에 이식되는 첫 사례로, 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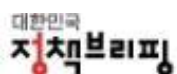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착수식에는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법무부 차관* 및 사업 관련 부서 국장이 참석하고, 한국 측에서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과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는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부소장 등이 참석한다. 양측은 사업 추진 일정과 세부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부 차관이 특허청장을 겸직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모델의 확산 거점을 마련하고, 향후 아세안, 아프리카 등에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착수식은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출발점”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행정 환경을 선진적인 지식재산행정 체계로 고도화함과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정보국	책임자	과 장	윤기웅 (042-481-5460)
	지식재산정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보미 (042-481-5112)



□ **사업개요**

- 개도국 대상 정보화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추진
 - * 정보화 컨설팅 : 지식재산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및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시스템의 해외 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
 - ** 시스템 구축 지원 : ODA 자금 또는 대상국 예산으로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보급을 추진

【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 성과 】

■ KOICA 무상원조 자금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 :

국가	기간	금액
몽골	'10.06.~'11.12.	335만불
아제르바이젠	'11.09.~'13.08.	420만불
ARIPO	'13.10.~'15.08.	580만불
이집트	'19.10.~'23.08.	290만불
튀니지	'23.05.~'27.02.	373만불

- 대상국 자체예산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 : UAE('16.2.~'19.2., 450만불)
- IDB 기금예산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 : 파라과이('19.6.~'21.9., 52.5만불)

□ **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개선 사업**

- **(사업명칭)** 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 **(기간 · 예산)** '25년 12월 ~ '29년 12월 / 973만불^{약 134억}(KOICA 예산)
- **(사업내용)** 지식재산권 데이터 정비 및 개선 컨설팅, 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정책자 및 관리자 역량강화 초청 연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재 조달 지원 등
- **(향후계획)** 우즈베키스탄 고위급 및 실무자 대상 초청 연수 진행('26. 2분기)
 - *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총 2회('20년, '23년)에 걸쳐 지재권 행정절차 분석, 개선모델 제시, 실행계획 수립, 초청 연수 등의 정보화 컨설팅 사업 수행